http://www.etak.or.kr

English Teachers Association in Korea

NEWS LETTER Issue 2017-1호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Email etaknewslettr@gmail.com

명예회장 신년 인사말

Honorary President's New Year Greetings



새해 희망찬 태양이 아침 하늘을 붉고 푸르게 수놓고 있습니다.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올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9월 새로 출범한 학회 집행부는 그동안 다져온 20여년의 단단한 반석 위에 학회의 내실과 외연을 더욱 확충·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고 함께하는 학회가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이미 많은 회원 수를 확보하였으며 우수한 학술지를 발간하여 왔고 수준 높은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가 보완되고 계발되어야 하겠습니다.

현 집행부는 이와 같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의 신설과 확충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임원들의 진정한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 타 학회의 모범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우리 학회의 회원님 모두에게 행운과 축복의 새해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저의 미려한 영시 한편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I'll be there with you

Written by Byung-Bin Im

You have lived somewhere.
I've lived here
Yearning the day
I'll be there with you.

You might smile somewhere.
I've passed the alley of memories
Taking hand by hand.
Let's go back there
Along the woods, riversides, temple ponds,
Peach orchards, barley fields…

On a spring afternoon long time ago,
Robins were singing merrily
While we were wandering on the road to a village.
And also shiny waves of a lotus pond
Embraced you and me
Murmuring the melody of 'amour'.

Returning to the town,
We came across wild flowers, butterflies,
Scarlet soil moles, streams…
Forgetting the time to leave,
You and I took a rest in an alien land.
That was real like a dream,
Reserved in my heart of panorama.

I'll be there with you.
We might smile taking hand by hand.
Let's go for a walk along the alley
You and I trod.

2017년 1월 16일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명예회장 임병빈

회장 신년 인사말

President's New Year Greetings



존경하는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회원 여러분,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상 하리 만큼 봄 날씨 같았던 겨울이 매서운 한파로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추운 겨울 속에서도 그동안 밀린 연구와 독서 그리고 휴식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으로 지난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작년 9월에는 12대 임원진이 새로이 출범하여 이전 임원진에서 이룩하여 놓은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빛내고자 각오를 다지고 노력하였습니다. 연장선상에서, 2017년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다 발전된 학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콜로키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4월 중이며, 콜로키움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영어교육의 미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변화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파파고'(papago)의 등장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번역과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에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약 100개 이상의 언어를 번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영어교육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둘째, 금년 학술대회는 자매 학회들과 공동개최하여 보다 폭 넓은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영어교과교육학회,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와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세 학회의 공동학술대회를 통하여 영어교육의 정책, 교실현장에서의 영어교육 실태 등에 대해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어교육 전문가들과 영어교육자들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미래의 영어교육의 방향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는 우리 학술지가 등재지 계속평가를 받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학술지평가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술지가 우수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학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변함없이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시고 더욱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6일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회장 이현구

열린 논단



영어교육의 창조적 파괴

이노신 (정책부회장, 호서대)

지난 번 저의 지인 한 분께서 일본여행을 다녀오셨다. 그 분은 일본어를 한 마디도 못하시는데도 스토어에서 물건을 흥정하거나 호텔직원들과 대화하는데 언어적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셨다고 한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통번역기를 사용하셨는데, 한국어-일본어 상호간의 음성인식 통번역 정확도는 90%-100%의 확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는 굳이 일본어를 배우지 않아도, 중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인공지능 기반 자동통번역기를 사용하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언어적 소통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영어는 어떨까? 한영-영한 음성인식 기술 또한 이미 허리춤까지 차 올라온 느낌이다. 발목에서 무릎까지 차 올라오기 까지는 거의 50년 반세기가 걸렸다. 그런데, 무릎에서 허리까지 올라오는 시간은 5년-7년 정도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허리에 차 오른 지금 인공지능은 더욱 진정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미 신문기사의 통번역 정확도는 70%에 육박하고 있다. 중 2정도의 영어교과서는 80-100%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이 내는 기계음을 들어 볼 때, 고등교육을 받은 원어민 수준의 정확한 액센트와 발음을 구사하고 있다. 오히려 웅얼웅얼 거리거나 너무 빠르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일부 원어민들 보다 훨씬 깔끔하고 영롱한 유리알 굴러가는 느낌마저 든다. 정말 여성 인공지능과 인간 남성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주제로 한 영화 『Her』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그녀"가 등장할 날도 이제는 머지않았다는 매우 불길한(?) 예감마저 갖도록 한다.

그나저나 영어교육 분야는 현재 이러한 태산같이 밀려오는 변화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저 자신도 궁금해서 이 글을 작성하였다. 인공지능이 일반영어에서 일본어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게 되는 것은 길어야 10년 이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학생중심의 영어교육을 굳이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은 소비자의 비위를 잘 맞춰가며 소비자 중심의 언어적 소통을 이미 이루어 내고 있는 중이다. 많은 부분에서 영어교육방법론이나 영어교육과 관련된 음성학, 음운론 등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측된다.

이제는 영어교육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창의적인 ELT 방법론들을 모색해 봐야 할 시간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영어교육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우리 모두 앞에 놓여있는 과제이다.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검증해 왔던 수많은 것들을 과감히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을 융합하고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변화에 민감하든 둔감하든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과거에 민감했던 부분조차 둔감한 부분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되어 있어 미래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2017년 1월 이사회 개최



[2017년 1월 정기 이사회]

2017년 첫 이사회가 1월 13일(금)에 유성 만나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임병빈 명예회장과, 현태덕 자문위원, 이현구 회장, 이종복 전임회장을 비롯하여 강문구, 남은희, 박혜정, 성창규, 오마리아, 양정임, 윤경옥, 이노신, 이명관, 이정원, 이재영, 이학문, 이혜경, 원은석, 정경옥, 정보현, 차미양, 한혜령(가나다 순) 등 모두 22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학회 발전을 위한 심도 있고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주요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회지 온라인 인쇄

: 학회 차원 공식 공문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온라인 인쇄에 관한 구체적 질의와 공식 답신을 받은 뒤 진행 여부 결정

: 총무단에서 공문 송부 후,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

- 학회 윤리교육

: 학회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이에 따라 윤리교육과 관련된 진행 근거 마련의 필요성 실감

: 메일 공유가 가능한 자료는 온라인으로, 학회 차원에서 오프라인으로 기획 가능한 경우는 구체적인 근거를 남기는 방향으로 고려

- 학술대회 주제

1) Individualization & Autonomy,
2) Level Orientated Teaching Method,
3) Using Multimedia in ELT
4) Flipped Learning

등의 주제 중, Individualization & Autonomy가 다른 주제를 아우르는 광의를 담고 있어 학술 대회 주제로 고려

: 교과교육학회,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와의 공동 진행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학회준비 실무진 구성과 진행을 위한 회의 마련

: 학회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보다는 국내 학회가 적절하다는 중론

- 4월 콜로키움 개최

: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에 초점을 두고 영어교육을 접목하는 주제로 기획

: 콜로키움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 추천

: 정책팀에서 ETAK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콜로키움 계획과 운영 예정

- 학회 로고 수정

: 새로 기획된 로고의 가독성 부족에 대한 의견에 따라 로고에 대한 수정, 보완

Departmental Reports

분과별 업무보고

1. 학회지 온라인 인쇄

- e-저널도 학회에 불이익이 없다는 내용을 연구재단 담당자와 유선 상으로 확인
- 관련하여 학술재단에 구체적인 질의를 담은 공문을 보내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후 진행 여부 판단

: 학술지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

: e-저널의 출간 횟수와 방법

- 학회 총무팀에서 공문을 발송, 답변을 얻은 뒤 차기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여부 논의 예정

2. 연구윤리팀 업무보고

(이학문 윤리부회장)

-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서약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윤리교육 진행 중
- 학회 평가에서 정성적 지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성적 평가를 위한 윤리교육은 시의적절한 노력
- 정성평가 내용은 학회에서 이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

: 이메일 회람을 통한 온라인 윤리교육 실시

: 학회 또는 세미나 장소에서 오프라인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결과를 남기는 방안 역시 고려

- 총무이사가 현재 수집된 온라인 자료를 회원들에게 [온라인 윤리교육]이라는 타이틀로 전체 회람 메일 전송 예정

3. 홍보팀 업무보고

(남은희 홍보부회장)

- 2017년 4차례 뉴스레터 발간 예정
- ETAK Forum 세션을 새로이 구성하여 이사진 중에서 원고를 받아 수록

: 첫 시도로서 2017-1호에 이노신 정책부회장의 '영어교육의 창조적 파괴'라는 제목의 칼럼 게제

- 향후 이사진들에게 칼럼 의뢰 예정

4. 학술팀 업무보고

(한혜령 학술부회장)

- 학술대회 주제에 대한 논의

* Individualization and Autonomy
* 4차 산업혁명과 영어교육
* Flipped Learning

: 이 중, 첫 번째 주제가 가장 포괄적이고 수준별 교육, 멀티미디어, Flipped Learning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학술대회지원 신청 시 학술대회 주제에 맞게 발표가 구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한 요소, 이를 고려했을 때 첫 번째 주제가 적합하다는 중론

- 금년 학술대회는 국내학술대회로 개최
- 교과교육학회,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와의 연합 학술대회 주제에 대해서는 회장단의 협의 필요
- 향후 Call for papers 발송과 진행 일정에 대해 실무진 구성후 논의

5. 출판팀 업무보고

(이정원 출판부회장)

- 편집과 출판팀이 긴밀한 관계이므로 출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진행 예정
- 편집팀 업무를 논의해 보고 규정 점검 진행 예정
- 학술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진행 예정

6. 섭외팀 업무보고

(노승빈 섭외부회장)

- 섭외 부회장과 회장의 주도로 다양한 경로의 학회 지원 가능한 업체 접촉
- 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학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논의 중

분과별 업무보고

Departmental Reports

- 여름 또는 겨울 중 필리핀 산어거스틴 대학과 협력하여 워크숍 또는 봉사/교류 활동 진행 계획 중

7. 정책팀 업무보고

(이노신 정책부회장)

- 4월 콜로키움 진행을 계획

: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에 영어교육을 접목하는 것으로 주제 선정

: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 고려

- ETAK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사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

: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행사로 운영 가능한 방법 모색 예정

: 여러 학회가 참여할 경우 단독 세션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 고려

- 이노신 부회장 중심으로 콜로키움 기획

-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 진행

◇ **다음 이사회는 3월 17일(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확정된 일자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학술지 『영어어문교육』

ETAK Journal

1. 학술지 소식

- 『영어어문교육』 23권 1호는 1월 25일까지 논문을 접수하여 2017년 3월 31일 발행 예정입니다. 다음 호인 23권 2호의 마감일은 4월 15일이며, 논문은 국문, 영문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2. 논문투고 안내

- 학술진흥재단의 등재지인 『영어어문교육』이 회원 여러분의 논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영어교육적 내용이 함축된 영어학, 영미문학, 그리고 영어교육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회원 여러분이 수행하셨던 개별 또는 공동 연구를 모두 환영합니다. 논문을 작성하실 때는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시고 본 학회에서는 연구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니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는 지난 22권 2호 학술지부터 시작된 JAMS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께서는 MS-Word(2003 버전이상)로 작성하신 논문 파일을 학회 JAMS https://etak.jams.or.kr/에 논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지에 논문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옥고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어문교육』의 발행일자 및 논문 투고 마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호: 3월 30일 (원고마감 1월 15일) 국제호 (영문판)

2) 2호: 6월 30일 (원고마감 4월 15일)

3) 3호: 9월 30일 (원고마감 7월 15일) 국제호 (영문판)

4) 4호: 12월 30일 (원고마감 10월 15일)

회원 현황

ETAK Members

◇ 지난 한해 새로이 우리 학회의 회원이 되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1) 강여진(항공대학교)
2) 김기택(경인교대)
3) 김명숙(동국대학교)
4) 김민정
5) 김성애(부산대학교)
6) 김수연(안양대)
7) 김영미(중앙대)
8) 김은아
9) 김은현(서울신학대)
10) 김원보
11) 김정민
12) 김희영
13) 마지현(전남대)
14) 박순복
15) 신유선(경성대학교)
16) 심주연
17) 양정임(대전대)
18) 예진희(용인송담대학)
19) 오수현(부경대학교)
20) 이동주(한양대)
21) 이선정(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2) 이요안(부산대)
23) 이윤경(대구카톨릭대)
24) 이혜진
25) 임현우(한국외대)
26) 정현숙
27) 조규희
28) 조현희(대구교육대학교)
29) Eric Hall,
30) Lyle A. Lewin(을지대)

- 위와 같이 2016년 한 해 동안 30명의 회원이 새로이 가입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로써 현재 우리 학회 회원은 모두 647명이며, 이중 평생회원은 106명, 그리고 29개 기관이 기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식

Other News

1. 회원 가입 안내

- 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선생님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대학교에 재직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학교 도서관이 본 학회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학회 발전 기금 모금 안내

- 우리 학회에서는 학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발전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기금은 학회의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아래의 학회 계좌로 발전기금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협(351-0261-5617-23)**
  예금주: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